



Hana Market Weekly

달러/원·엔·유로환율·금리·주식

자금시장영업부

2024. 6. 17

본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이며, 하나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. 또한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로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,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닙니다.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.

주간 달러/원 동향(6/10~6/14) 및 전망



주간 달러/원 동향

- 주초, 예상보다 강한 미국 5월 비농업 고용지표 확인 후 연준 금리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약화된 가운데 글로벌 강달러 반영하며 환율은 큰 폭 상승 출발. 이어 유럽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부각된 데 따른 유로화 약세에 달러 강세 지속된 영향으로 추가 상승
- 중반, 미국 5월 소비자물가지수(CPI)와 6월 FOMC 결과 발표를 앞둔 관망세 속 소폭 하락
- 후반, 6월 FOMC 점도표 상향 조정 등 매파적 기조에도 미국 CPI 둔화에 따른 안도감과 파월 연준 의장의 일부 도비시한 발언에 하락. 이어 주 후반, 미국 생산자물가지수 둔화에도 6월 BOI 금정위에 대한 도비시한 평가에 따른 엔화 약세의 간접적 영향 반영하며 1370원대 후반에서 마감

달러/원 전망

- 달러 대비 주요 통화 약세 흐름 등에 영향 반영 등이 주 초반 달러 강세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. 특히 유로존내 프랑스의 정치 불확실성과 예상보다 덜 간속적인 BOJ의 엔화 약세 기조 지속 등이 주요하게 통화적 측면의 달러 강세 지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
- 반면, 미국의 경제 지표가 대체로 둔화 국면을 보이는 측면은 달러 강세에 상충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. 여전히 대표적 매파 연준 위원들의 금리 경로에 더 많은 진전을 기대한다는 발언 등이 상기 흐름을 제한하는 쪽의 영향을 미칠 전망 속 1,380원 전후 흐름이 예상

주간시가	주간고가	주간저가	주간종가	주간등락
1,379.5	1,381.6	1,366.2	1,379.3	-0.2

예상거래범위

1,375원 ~ 1,385원

엔·유로화 동향 (6/10~6/15)



유로화 동향

- 주초,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조기 총선 선언 등 유럽 정치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유로화는 약세 출발. 이어 6월 FOMC 결과 발표를 앞두고 통화정책 다이버전스에 대한 경계감이 강화되는 가운데 약세 지속
- 중반, 연준의 금리인하 예상 횡수 하향 조정에도 미국 5월 CPI가 예상보다 큰 폭 둔화된 측면과 그에 따른 위험선호 심리 유입 등에 유로화 가치 반등
- 후반, 프랑스 극우 정당 집권 우려 등 정국 불안 지속되는 가운데 약세 압력 심화되며 되돌림 시현. 이어 주 후반, 프랑스 국채 매도세에도 ECB 총재가 대응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발언한 측면 반영하며 약세 흐름 속 마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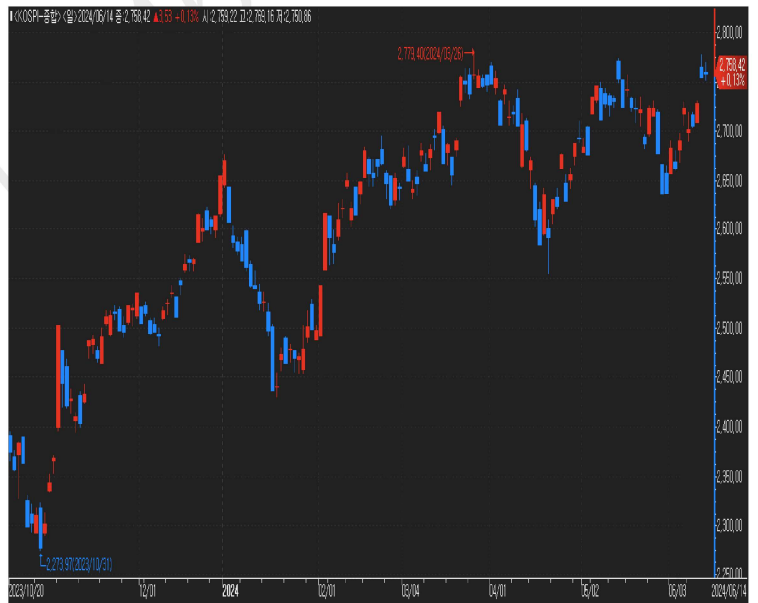
엔화 동향

- 주초, 미국 고용 호조 여파 속 미 국채금리 상승세로 인한 미-일금리차 우려 등에 엔화는 약세 출발. 이어 연준 점도표와 경제전망 등에서 매파적 스탠스가 강화될 수 있다는 경계감이 유입됨에 따라 약세 지속
- 중반, 미국 인플레이션 냉각 기대감과 BOJ의 국채 매입 검토 논의 관련 소식에 약세의 일부 되돌림 시현
- 후반, 미국 PPI 둔화에 따른 연준 금리인하 기대감에도 유럽 정치 리스크로 인한 유로화 약세가 달러 강세로 이어진 측면이 엔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. 이어 주 후반, BOJ 6월 금정위에서 국채 축소 매입 관련 구체적 논의가 부재한 데 따른 실망감에 추가 약세를 보이며 마감

주간시가	주간고가	주간저가	주간종가	주간등락
1.0803	1.0852	1.0668	1.0703	-0.0100

주간시가	주간고가	주간저가	주간종가	주간등락
156.8	158.3	155.7	157.4	+0.6

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(6/10~6/14)



주간 국고채 금리 동향

- 주초, 5월 미 고용보고서의 타이트한 추세가 이어지며 국고채 금리 상승 출발 이어 CPI 발표와 FOMC에 대한 경계감 강화 속에 방향성이 제한되었지만, 국고채 매수 심리는 강했던 것으로 진단된 양상
- 중반 들어, 전일 미국채 강세 흐름을 반영함에 따라 국고채 금리 하락 흐름 전환 양상을 보였지만, CPI와 FOMC에 대한 경계감 등도 강화된 흐름 시현
- 후반 들어, 미 5월 CPI가 시장 예상을 하회한 가운데 FOMC 결과도 점도표 인하 횡수 축소에 따른 매파 성향 보다 파월 의장 회견에서의 '물가상승률이 예상보다 빠를 시 대응 준비가 되어있다'는 측면이 다소 완화적으로 평가되며 국내외 금리 하락 추세에 영향. 이어 주 후반, 미 생산자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하락함에 따른 미 국채 강세 영향 반영 속 국고채 금리도 하락세 지속하며 마감

주간 증시 동향

- 주초, 예상보다 강했던 5월 미 고용지표 영향으로 연준 금리인하 기대감이 급격하게 후퇴하며 지수 하방 압력 강화 속에 코스피 하락 출발. 이어 전일 큰 폭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에 따라 상승 전환하였으나, 주요 이벤트 등에 대한 경계감 속에 오름폭 제한된 양상
- 중반 들어, 반도체 중심,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 강화 등으로 상승 폭 확대되는 흐름 시현
- 후반 들어, 미국 CPI가 시장 예상을 소폭 하회하며 투자심리 강화에 영향을 미친 반면, 연준 FOMC에서는 점도표가 3회에서 1회 인하로 축소되었지만, 시장의 2회 기대 반영 등에 따른 두 이벤트의 호재 인식 영향 속 소폭 상승 흐름 지속 후, 주 후반, 뉴욕 증시의 AI 관련주 상승 등이 호재로 작용하며 외국인 순매수 속에 소폭 상승 흐름 마감

